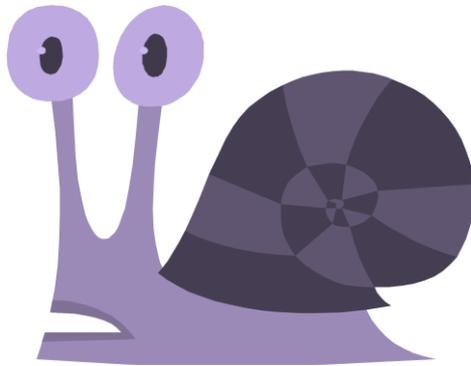


내 마음이 무빙무빙*

moving moving



라온아띠 10기

인도팀

단원 병수, 용덕, 현정, 소현

민달팽이, 집을 찾다

- 주제선정이유

민달팽이는 집이 없다. 꼭 우리의 모습이다. 2010년 주민등록인구 5,000만 명 중 1,000만 명 이상이 최저 기준 이하의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20대 10명 중에서 9명은 자신의 집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집은 과연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불과할까.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집’에서 살지 못한다.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집’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부천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소차역으로 가는 길, 2013/07/12
이곳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권은 우리 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

진짜 '집'을 찾아 방문한 기관

인천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 유니온



인천주거복지센터

오전에 방문한 기관은 ‘인천주거복지센터’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전부터 주거운동을 벌이던 활동가들이다.

현재 이들은 인천시 동구 만석동(해피하우스)에서 ‘만석동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만석동 일대는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된 마을로, 현재 소위 ‘판자촌’이 형성된 곳이다.

라운아띠 10기 인도팀은 인천주거복지센터에서 선배 활동가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인상 사회복지사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만석동의 빈집을 무료로 임대하여, 수리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
좌측부터 박소현 단원, 조현정 단원, 박인상 사회복지사, 서용덕 단원, 류병수 단원

• 주거복지

- ‘주거복지’라는 개념은 사실상 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례다. 집을 보는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살기 좋은 집’으로 집을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라 생각한다.
- 주거권 운동은 집을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배양하고,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살기 좋고 이웃과 소통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 주거복지의 실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건축,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특히, 인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주거상담’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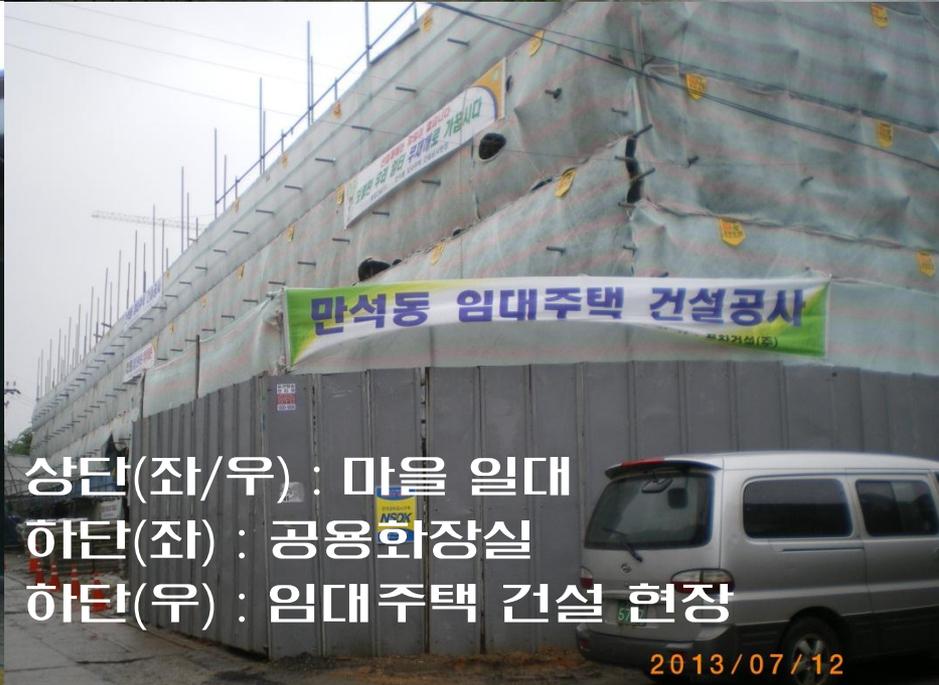
2013/07/12



2013/07/12



2013/07/12



상단(좌/우) : 마을 일대
하단(좌) : 공용화장실
하단(우) : 임대주택 건설 현장

2013/07/12

• 재개발

- 재개발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장점을 꼽자면, 도시계획에 따라 새 건물을 지어 구획을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재개발은 주민공간은 물론, 마을문화, 역사를 훼손시킨다.** 더구나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이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된다.**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재개발의 지역의 집값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가격이 올라가 더 멀리 이동하게 된다. 그들은 되돌아올 수 없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는 오래 전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들에게는 **적절한 대책도 주어지지 않는다.**
- 인천시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재개발 정책이 무자비한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방식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이나 환경 개선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마을만들기

- 초기 만석동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방식이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공간을 창출할 수가 없었다. 일부 시설물의 경우, 주민공동시설물이 아닌 소수의 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버렸다.
- 만석동의 경우 고령층의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리더가 쉽게 생겨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참여를 높여 나가고 있다. 각종 주거상담을 통해 주민의 개별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 한다. 또한 co-housing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 마을만들기의 궁극적 목표는 고용과 주거, 복지가 함께 실현되는 것으로, 앞으로 사람냄새 나고 주민참여가 활발한 마을이 되는 것이다.

마을지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단원들



2013/07/12

• 소통

- 과거 쪽방 상담소가 들어섰을 때, 주민들은 말했다. 우리는 쪽방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고... 관에서는 이곳을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경험할 수 있는 이른바 체험형 마을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찌 단순한 체험이 될 수 있겠냐고... 위로부터의 변화에 존재하는 소통의 부재다. 단숨에 살고 싶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나가기** 해야 한다.
- 나아가 **주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사는 곳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싸우는 공간이 아니라 나누어 가면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

민달팽이 유니온

오후에 방문한 기관은 '민달팽이 유니온'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출발한 민달팽이 유니온은 학교 내 동아리를 거쳐, 현재는 청년주택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청년층의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을 찾아가, 대학생의 신분으로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라온아띠 10기 인도팀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선배 활동가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지웅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건물 지하실에 위치한 사무실.
좌측부터 서용덕 단원, 박소현 단원, 권지웅 대표, 조현정 단원, 류병수 단원**

• 청년층의 주거문제(1)

- 소득대비 집값이 비싸다. 중위분위의 계층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사는데 필요한 기간은 75년, 이마저도 주택가격이 변동하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의식주로 대변되는 인간의 필수요소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
- 원룸/하숙/고시원의 경우 평당 월 10만 9천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파트 월세 평당 월 9만 5천원, 타워팰리스 평당 월 11만원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층을 상대로 더 많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거로 힘들어하는 청년층을 역이용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다.
- 지금의 ‘집’은 ‘재산’의 성격이 강하다. 재산권과 주거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바로 주거권이다.

• 청년층의 주거문제(2)

-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하는 단편적인 사례는 더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실상은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학생을 위한 주거시설인 기숙사가 혐오시설화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수입이 없는 청년층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청년, 대학생이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권지웅 대표와 단원들



2013/07/12

• 청년층의 주거문제(3)

- 보증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높다. 그러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빚까지 내야 하는 큰 부담이다. 게다가 월세의 경우 별도로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자 부담이다. 이러한 짐을 가족에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 개별 가정에 따라 부담할 수도 부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정부에서는 현재 청년과 관련하여 전세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용이 까다롭고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특히,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청년층을 보호하는 주체는 가족이었다. 이제 가족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주거비까지 가계소득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득대비 집값이 비싸고,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가격이 높고, 집이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학교에 우리학교가 짓는 기숙사가
학교 근처의 자취, 하숙비용보다도 비싼
이 기이한 상황의 원인이 궁금하다면 누구나 참여해 주세요!

**민자기숙사비
정보공개 청구단
모집**

<http://www.facebook.com/minsnailunion>

참여시기 : 4월 26일~5월 25일
 참여방법 : 정보공개청구신청서 작성 후
 minsnaion@gmail.com
 또는 단위 총학생회 메일
 신청서 : club.cyworld.com/plainsnailMU 에서 다운로드
 주최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등록금네트워크



2013/07/12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대안 공동체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하고 있는 다양
한 활동과 관련된 포스터
오는 10월, 주거관련 축제도 기획 중이
라고 한다.

집값은 자꾸만 오르고 용돈에, 빚갚을 위한 열배에 자꾸만 지쳐가는 우리들
 다른 곳은 너무 비싸 빛도 들지않고
 공방이, 습기만 가득 찬 반지하를 견뎌야 하는 우리들
 방값이 비싸서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아동, 청년 주거환경 캠페인 진행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동, 청년 주거환경 캠페인단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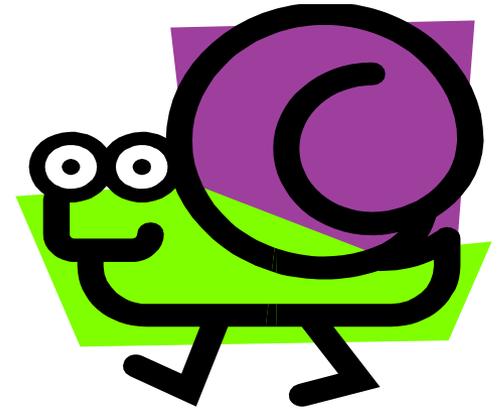
모집기간 : 2013년 5월 1일~ 5월 9일(자정)
 활동기간 : 5월 10일 ~ 5월 25일(약 2주)
 5월 10일 전체 OT (오후 7시 @어린이 재단 강당)
 모집규모 : 30명
 대상 : 아동, 청년 주거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
 (minsnailunion@gmail.com)
 활동내용 : 아동,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캠페인/서명운동 진행
 캠퍼스 내 캠페인 1일, 거리 캠페인 1일
 혜택 : 자원봉사 시간 최대 20시간 인정
 식사 제공
 발표 : 5월 9일 개별 연락 및 민달팽이 유니온 페이스북 게시
 문의 : 민달팽이 유니온 연구사업팀
 이수지 (010-5098-8941)
 공동주최 : 어린이재단,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신청서 : club.cyworld.com/plainsnailMU 에서 다운로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대안 공동체
민달팽이 유니온

2013/07/12

• 청년층의 주거문제(4)

- 임대인은 강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세입자 연대를 구성**하여, 각종 정보의 공유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정치적으로 적절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기숙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세입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공동구매 및 주거상담활동을 벌여 세입자들간의 결속력 강화하고 하나의 계층으로써 존중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자기 방은 자기공간이요, 자아실현의 공간이다. 청년에게는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다.** 신체를 방과 그 속의 물건까지로 확장한다면, 주거권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는 자기자신의 무언가를 잃는 것과 같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내 맘대로 무빙무빙**

주거복지



건축

- 물리적 공간의 보장
-주택 보급 및 리모델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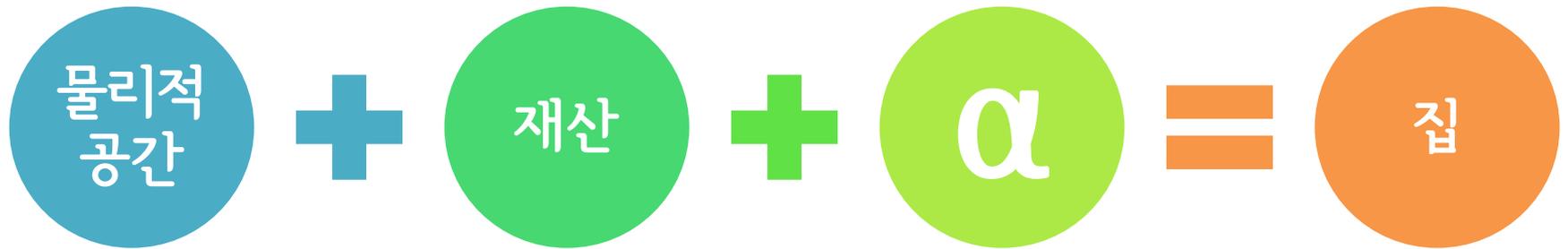
- 주거권 관련 문제 해결
-미분양주택, 임대료 관련 문제, 과도한 부동산 투기 등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각 계층들을 위한 정책 마련



사회복지

- 지역 주민의 요구 파악 후, 마을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집



현대사회(특히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는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 재산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집은 이 두 가지 의미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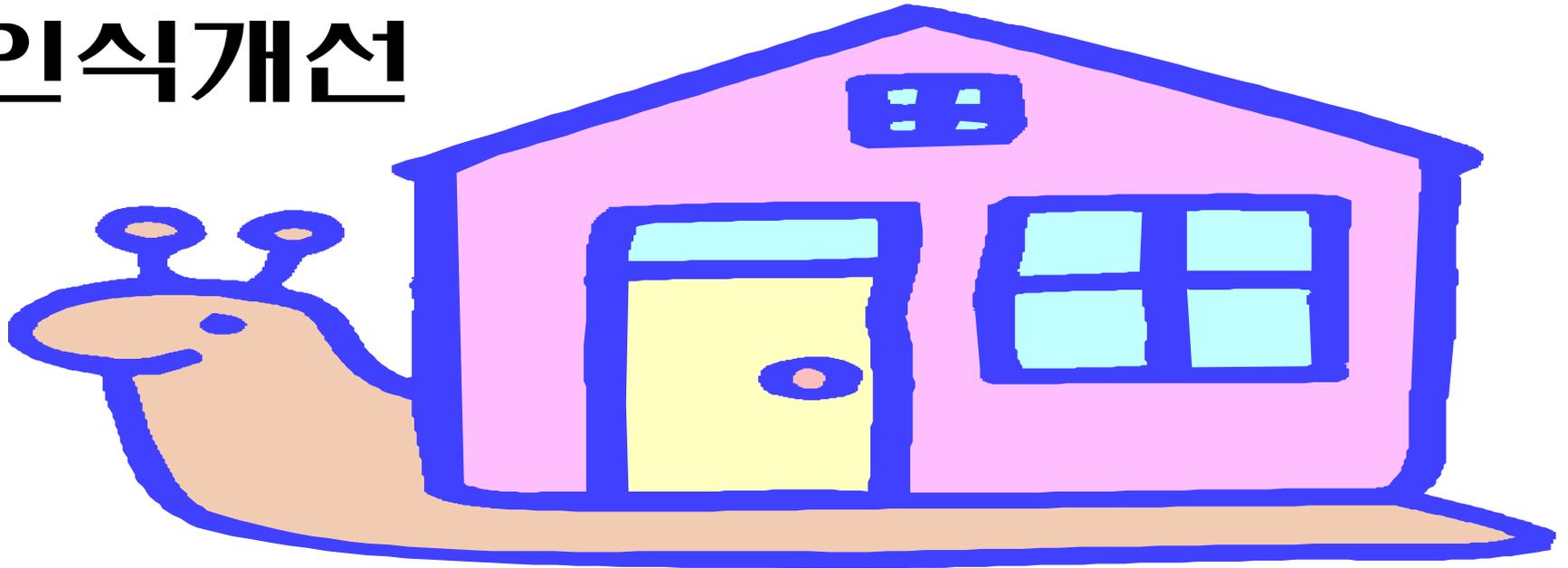
네트워크 형성

-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기관 및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주거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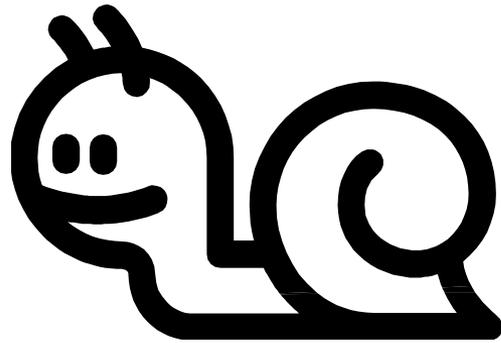
- 주거권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인식개선



인천주거복지센터와 민달팽이 유니온은 공통적으로 ‘집’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할 집에 대한 개념과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거권 문제들 (철거, 청년주거문제, 달동네 이미지마케팅사업, 부동산투기, 임대주택문제 etc)에 대해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집이란 쾌적한 공간으로써 ‘살기 좋은 공간’ 그리고 ‘소통하는 공간’ 이 되어야 한다. 사춘기 시절 ‘내 방’이라는 공간이 무척 특별하게 다가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아닐까.



감사합니다.